

임실 아쿠아페스티벌 인기몰이

SNS 통해 입소문... 수용인원 300명 넘는 일일 평균 400~500여명 방문

임실군의 대표적인 홍보수단으로 자리잡은 임실군청 SNS가 여름날의 축제인 아쿠아페스티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9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물놀이장을 개장, 운영 중이다.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리고 있는 아쿠아페스티벌은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임실군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입소문이 확산되면서 많은 인파들이 몰리고 있다.

개장 초반 집중호우 등 늦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천여명의 방문객이 물놀이장을 방문한 가운데 당초 예산 수용인원(300명)을 훨씬 뛰어넘어 일일 평균 400~500여명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실군은 지난 7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2019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 물놀이장을 개장, 운영 중이다.

스크림을 선사하고 있다.

모두 1천개에 달하는 아이스크림을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가운데 폭발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돌쇠 이벤트'는 축제기간 동안 물놀이장에 돌쇠가 돌쇠가 아이스크림을 들고 '출몰'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장을 찾은 김경숙씨는 "돌쇠님을 만나 게임도 하고 아이스크림도 받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내년에 꼭 오고 싶은 축제라 기억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SNS 이벤트는 아쿠아 페스티벌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페이스북 등 이용자를 통한 축제홍보

는 물론 직접 축제장을 방문, 유도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임실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은 전라북도가 역점추진하는 1시간 1대 표관광지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행사로, 주요시설로는 메인풀과 슬라이드, 수상 축구풀, 유아슬라이드 풀 등으로 마련됐다.

심 민 군수는 "임실군청 SNS가 임실군의 좋은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임실치즈축제 등 임실군 대표축제의 홍보대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SNS에 참여하여, 아쿠아 페스티벌이 성공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광한루 600주년 기념행사

2일부터 4일까지 막걸리축제·대중가수 축하공연 등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주년을 맞아 8월 2일부터 4일까지 광한루 원과 차 없는 거리, 요천둔치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친다.

또한 남원시는 광한루 건립 600년 기념주관 동안 기념식수, 성주굿, 연혁·편액 낭독, 한여름 밤의 막걸리축제,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대중가수 축하공연,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 붓글씨 퍼포먼스, 학술대회 등을 전개한다.

2일 오후 6시부터 애주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남원 막걸리와 안주거리가 가득한 '한여름 밤의 남원 막걸리 축제'가 요천둔치에서 열리고, 광한루에서는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간 남원 도공의 애환이 깃든 남원아리랑 '오늘이 오늘이소서' 공연이 펼쳐진다.

3일에는 광한루원에서는 앞으로 1000년을 이어갈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는 기념식수, 성주굿, 연혁·편액 낭독, 비나리 공연이 펼쳐지고, 광한루의 국보 승격을 위한 '광한루 600년 학술대회'를 비롯해 10년 뒤에 볼 수 있는 사랑의 편지 타임캡슐 이벤트, 사랑의 600년 탁복행사,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4일에는 광한루원에서 11시부터 퓨전 전통혼례체험 '올빼미 시집가는 날'과 오후 3시와 5시에 광한루원에서는 각각 신관사또 부임 행사 상설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등이 진행된다.

남원시는 이밖에도 광한루 600년을 기념해 흥겨운 농악한마당·광한루 전통 소리청(~10월)과 퓨전 국악공연(~11월7일), 광한루원의 밤풍경(~9월27일), 부모님 효도결혼식(~8월25일), 목판인쇄체험(~12월) 등을 연중 이벤트로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농기센터, 영농현장 기술지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와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최근 농업인들의 농작물 작황파악 및 재해예방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영농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남원시 기상본석현황(2019년 7월)은 평균 기온 23.9℃, 강우량은 297mm를 기록하여 평년대비 1℃정도 낮고, 21mm정도 많이 내렸다고 한다.

이에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각 농작물의 작황을 조사했으며, 수도작의 경우 이상 후 기상 호조건으로 전년 대비 생육이 양호했고, 사과는 4월중 저온이 발생하였으나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복숭아는 3월 고온으로 개화는 평년대비 빠른 편이었으나 4월 개화기 저온으로 인해 피해가 다소 발생했지만 적과시에 대부분 회복되어 현재 생육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폭염과 폭우, 태풍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농업피해예방을 위해 작물별 대비요령과 피해 발생 후 농업인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남계지구 4개 마을 새뜰마을사업 공모 착수

41억 원 규모 주택정비지원·생활 인프라 구축

순창군이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0년도 새뜰마을 공모사업 대상지로 순창읍 시계, 사정·2, 금덕마을 등 총 4개 마을을 선정하고 공모사업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업비는 국비 30억 원, 지방비 9억 원, 자부담 2억 원 등 총 41억 원 규모다.

대상지로 선정된 4개 마을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225호중 72.8%,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50.2%로 주거환경이 극히 취약할 뿐 아니라 군 소재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전과 위생 여건 등이 낙후되어 있다. 여기에 경천과 양지천이 합류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범람시 하천수위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심습적으로 발생되는 곳이기도 해 이번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군 측은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농어촌 낙후지역 대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민 밀착형 사업으로 지역과 주민이 주도하고 중앙에서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향식 공모로 진행된다.

군은 지난 5월에 4개 마을 이상 등 마을구심체원 설명회를 시작으로 각 마을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갖고 새뜰마을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과 추진위원회 정관도 제정했다.

이어 오는 8월에는 관내 새뜰마을 사업지구 심초마을 등 6개 우수마을 견학과 전문가 초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 관심도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새뜰마을사업 정부정책 홍보와 함께 공모사업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2020년도 도시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발굴부터 평가 단계까지 공모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남계지구 주민들의 자존심 고취는 물론 주민복지, 휴먼케어, 주민역량강화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가족센터 건립 예산확보 전력

순창군이 지역중심의 보편적인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족센터' 건립 예산 확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순창읍 향토회관 인근을 예정부지로 선정하고 사업비 65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정부가 생활 SOC 3개년 계획을 수립.발표하면서 복합화를 강조해 군도 이번 가족센터내 도서관을 복합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성할 주요시설인 가족센터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 다문화가족을 비롯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가족돌봄,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군은 전문인재 양성교육과 사회교육을 연계해 여성커뮤니티 공간을 포함한 통합지원서비스 거점시설로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에는 맞벌이 가정 및 자녀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돌봄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와, 다목적 가족 소통공간, 가족교육실과 상담실, 각종 프로그램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관련 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방문해 사업계획을 설명했고, 이후에도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를 차례로 방문해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일본 부당조치 적극 대응 나서

각 부서 및 산하기관 구입 제품 중 일본제품 자제 등

남원시가 계속되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조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자체로서의 책무로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원시의 구체적 대응 방안은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구입하는 제품 중 일본제품을 자제하고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철폐 전까지는 공적인 일본방문은 물론 사적인 여행도 자제할 것과 국민(시민)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일본의 상징물(디자인), 문구(언어)의 사용도 자제하도록 권

고하고 나섰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정유재란 당시 일본이 곡창지대인 전라도에 진입하고자 거점으로 선택한 곳이 남원이었고, 남원에서는 민인의사가 나서 죽은으로 마지막까지 저항했었다"며, "일본이 수출 규제조치를 철폐하지 않는다면 남원시 공무원들과 시민의 의견을 들어 더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업무협약

지리산생태탐방원(원장 김철기)은 남부권역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근 생태탐방원과 지역 관계기관 등 8개 기관이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8개 기관은 지리산생태탐방원, 한려해상생태탐방원, 가야산생태탐방원, 무등산생태탐방원,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전라남도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군 등이다. 8개 기관은 국립공원 생태관광 저변 확대와 더불어 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을 적극 활용하여 상호 연계형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에 적극 협력을 약속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